

바젠트, 눈물의 1,000만불 계약 연장 “아버지, 수도도 없는 집서 자라...저와 가족의 짐 덜어

시카고 베어스의 백업 쿼터백 타이스 바젠트가 구단과 2년 1,000만 달러(인센티브 포함 최대 1,6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연장을 체결했다고 구단이 20일 발표했다. NFL 네트워크의 이언 라포포트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바젠트에게 있어 단순한 연봉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계약 발표 후 인터뷰에서 바젠트는 눈시울을 붉히며 가족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아버지는 제 오른팔 같은 분이다. 아버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도조차 없는 집에서 자랐다”며 “이번 계약은 제게 주어진 선물일 뿐만 아니라 제 가족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저와 가족의 어깨에서 짐을 덜어냈다”고 말했다.



▲ 타이스 바젠트, 사진=chicagobears.com

했으며, 시즌 전체 성적은 패스 성공률 65.7%, 터치다운 3개, 인터셉션 6개였다.

2024년에는 백업 역할을 유지했지만, 구단이 전체 1순위로 케일럽 윌리엄스를 지명하면서 출전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는 시즌 내내 단 두 번의 패스를 던졌고 모두 성공시켰다.

올해 새로 부임한 벤 존슨 감독 체제에서도 바젠트는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베어스는 베테랑 케이스키 킨을 영입했지만, 바젠트는 프리시즌에서 인상적인 활약으로 경쟁력을

보여줬다. 지난 일요일 버펄로 빌스를 38-0으로 대파한 경기에서 바젠트는 교체로 들어와 연속 세 번의 드라이브를 모두 득점으로 이끌었고, 22회 패스 중 13회를 성공시켜 196야드와 1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다.

이번 계약 연장은 바젠트의 프리시즌과 캠프 활약이 코칭스태프의 신뢰를 얻었음을 보여준다. 킨은 부상으로 팀의 두 번째 프리시즌 경기를 결장했으나, 정규 시즌에서는 바젠트와 윌리엄스를 위한 멘토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올 시즌 바젠트가 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윌리엄스가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짧은 출전 시간에도 바젠트는 신뢰할 만한 백업 쿼터백임을 입증했다. 드래프트에서 외면받았던 선수로서는 작지 않은 성취다.

바젠트는 디비전 II 대학인 셰퍼드에서 활약한 뒤, 2023년 NFL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 못했지만 자유계약선수(UDFA)로 베어스에 합류했다. 그는 트레이닝캠프에서 기회를 잡아 백업 자리를 따냈고, 주전 쿼터백 저스틴 필츠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곧바로 선발로 기용됐다.

바젠트는 첫 선발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며 크레이그 크렌펠 이후 베어스 소속으로 데뷔전을 승리한 첫 쿼터백이 됐다. 또 그는 1950년 이후 NFL에서 경기를 선발 출전한 최초의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 못한 디비전 II 출신 쿼터백이 됐다. 당시 바젠트는 네 차례 선발 출전에서 2승 2패를 기록

켈 롤리, 포수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

시애틀 매리너스의 포수 켈 롤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롤리는 지난달 25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두 차례 홈런을 터뜨리며, 포수 단일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을 작성했다.

롤리는 1회초 랜디 아로자레나와 함께 부런 홈런을 기록하며 시즌 48호를 달성. 2021년 살바도르 페레즈(캔자스시티 로열스)가 세운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어 2회초 다시 투런 홈런을 쏘아 올리며 시즌 49호를 기록. 마침내 페레즈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 켈 롤리, 사진=APFBBNews

페레즈가 2021년 조니 벤치의 45홈런 기록을 넘어선 지 불과 4년 만에 신기록이 다시 바뀐 것이다. 기존 기록 상위권

에는 하비 로페즈(2003년 43홈런), 토드 헨들리(1996년 41홈런), 로이 캄파벨라(1953년 41홈런)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로페즈는 그해 43홈런 중 42개를 실제 포수 포지션으로 출장해 기록했는데, 롤리도 이번 시즌 40개의 홈런을 포수로서 기록하며 이 부문 기록 경신까지 눈앞에 두고 있다.

올 시즌 롤리는 올스타전에 처음으로 선발돼 홈런더비에서 우승까지 차지했고, 시즌 전반기에만 38홈런을 기록하며 자신의 커리어 하

이틀 크게 넘어섰다. 수비에서도 뛰어난 평가를 받는 그는 이미 시즌 중반 7fWAR를 기록해, 공격력이 주도한 페레즈의 2021년(2.7fWAR)과는 다른 차원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멕시코 복서 차베스 주니어

미국서 추방, 멕시코서 수감



▲ 홀리오 세사르 차베스 주니어, 사진=AFP/뉴시스

멕시코 복서 홀리오 세사르 차베스 주니어가 미국에서 추방된 직후 멕시코에서 곧바로 체포돼 수감됐다.

차베스는 지난 7월 초 LA 스톱시티에서 제이크 폴과의 경기에서 판정패를 당한 지 나흘

만에 체류 비자 초과와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한 달 이상 미국에 구금됐다가 추방됐으며, 멕시코에서는 조직범죄와 총기·탄약·폭발물 밀매 연루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

멕시코 당국은 2019년부터 4년에 걸친 수사에서 차베스가 시날로야 카르텔과 연계돼 있다는 정황을 확보했고, 2023년에는 그의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는 소노라주 에르모시요의 연방 최고 보안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차베스의 미국 추방과 멕시코 내 수감을 확인했다.

차베스 주니어는 과거 WBC 미들급 챔피언으로, 전설적인 복서 홀리오 세사르 차베스 시니어의 아들이다. 그는 2017년 멕시코인 맞대결로 큰 주목을 받은 사울 ‘카넬로’ 알바레스와의 경기에서 완패한 바 있다. 최근에는 알코올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2019년 다니엘 제이컵스와의 경기 도중 기권한 이후 하위 무대에서 활동해왔다.

이번 제이크 폴과의 대결 역시 복싱 팬들을 실망시켰다. 차베스는 경기 대부분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막판 몇 라운드에서 손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을 때 비로소 효과적인 공격을 펼쳐 “처음부터 승리를 노렸다면 충분히 풀을 쥐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PREMIER TAX GROUP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JUNGHOOON KIM
 E.9923003@gmail.com
 C.714.335.8256
 카톡 ID: Junghoon123

프리미어 텍스 그룹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